음정 좋~고, 박자 좋~고 "즐거운 음성공양"

사찰 거사합창단 '신행 본보기'

조계사 · 한마음선원 · 수원포교당 등

'거사파워'를 상징하는 거사합창단은 노래를 통해 신행의 기쁨을 만끽한다. 사진은 3월 27일 조계사 일요법회에서 음성공양을 올리고 있는 조계사 거사합창단의 모습.

4월 8일로 두 살이 된 조계사 거사합창단. 3월 31일 밤 8시, 서울 조계사 합창단실에서 남성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퍼진다. 사찰의 일정이 끝났을 시간인데도 거사들의 노래 연습이 한창이다. 이날의 연습곡인 '산사의 봄'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상게'만 일곱 번째. 지휘자 민선희씨가 한 소절씩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키고 있었다.

몇 번이나 야단(?)을 맞고도 뭐가 그리 좋은지 단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노래가 끊길 때마다 어김없이 튀어나오는 우스갯소리가 재미를 더한다. "여유 있게 가세요." 지휘자의 지적에 단원들의 노랫소리가 한결 조화롭다.

떠는 음이라는 지휘자의 말에 차성회 총무(INI스틸 열연국내영업팀 과장)가 갑자기 심한 동작으로 손을 떤다. 순식간에 합창단실은 웃음바다로 바뀌어 버렸다. "몸을 떨어야 음이 떨리죠." 웃음띤 얼굴로 궁색한 변명을 하던 차성회 총무가 이제는 수습에 나섰다. "자자, 다시 연습 합시다."

조계사 거사합창단은 30여명의 회원들이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한자리에 모인다. 회원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 중 40~50대가 절반을 넘는다. 대부분이 공무원, 교수, 회사원, 자영업 등 각기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아버지들이다.

창립 이후 줄곧 회장을 맡아온 유재권씨(중소기업진흥공단 종합컨설팅실장)의 말에서 거사들의 뒤늦은 노래 재미가 느껴진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불가를 부르다보면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환희심에 저절로 행복의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행복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거죠."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점도 거사합창단 활동의 매력 가운데 하나다.

문영찬 씨(서울지방경찰청 감사계)는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직장생활은 항상 긴장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지만, 합창단은 나이와 직급을 따지지 않는 수평적인 인간관계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찰이 어머니합창단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거사합창단은 조계사와 한마음선원, 수원포교당 등 3곳이 전부다. 남성신도수가 워낙 적은데다가 직장 때문에 사찰에서의 신행활동이 쉽지않은 탓이다.

그러나 거사합창단을 운영하는 세 사찰은 상당한 효과를 얻는다. 합창단에 참여하는 거사들의 신행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사들의 신행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남성불자들이 거리낌없이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 '거사파워'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거사합창단원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신심을 키우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성취감을 맛보고 있다.

거사합창단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한마음선원은 90여명의 거사들이 매주 수요일 연습을 하고 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세대간 벽을 허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부산, 대구 등 전국 지원에도 별도의 거사합창단을 두고 있는 점은 한마음선원의 가장 큰 특징이다.

1994년 창립돼 올해로 11년을 맞은 한마음선원 거사합창단은 매년 한차례 열리는 한마음합창제에서 남성, 혼성 합창공연을 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주 일요일 열리는 한마음선원 법회에서 음성공양을 올리고 있다.

2001년 창립한 수원포교당 남성사자후합창단. 3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한 25명 안팎의 단원들이 신행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자후합창단은 박정희 지휘자의 지도로 매주 수요일 연습시간을 갖고 있다. 여성가릉빈가합창단과의 협연을 비롯해 경기아버지합창제 출연 등 대외적인 활동도 꾸준히 벌이고 있다.

화합과 조화를 중요시하는 이들 거사합창단은 남성불자들의 신행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한사람이라도 튀는 경우 소리의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거사합창단원들에게 합창단은 도반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닦는 수행도량인 셈이다.

글 · 사진=박봉영 기자

우리단체 이사람

정찬연

철불협 포교위원장

법우회 2곳 창립 … 집에 '복전함' 두고 이웃 도와

22개 철도법우회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의 포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찬연(46 · 사진)씨. '부처님의 극성팬'임을 자임하는 그의 전력은 화려하다.

가족과 친척이 모두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대학시절 제 발로 불교학생회에 가입해 불교에 귀의했다. 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에 철도기관사로 입사한 이후 1990년 첫 근무지였던 구로승무사무소의 철도법우회를 창립했고, 다음 근무지였던 성북승무사무소에도 1995년 법우회를 결성했다. 1999년에는 조계종가족이 돼 직장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참선과 108참회를 이어갈 만큼 개인수행에도 철저하다.

정위원장에게는 화려한 전력만큼 특별한 에피소드도 많다. 구로승무소 법우회를 창립한 뒤 법회장소가 없어 허탈해할 때 기꺼이 장소를 내어주고 법문까지 해주었던 관음포교원 정도 스님이 은인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당시 관음포교원도 창건 직후라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아내마저 개신교 신자였던 주변환경이 제가 활동하는데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면서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죠."

그는 아내에게 한번도 불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대신 자연스럽게 불교로 이끌었다. 나무아미타불 10만8천번 사불이 방법이었다. 동산불교대학의 졸업을 앞두고 사불을 하던중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아내는 한장당 10원을 대가를 요구하며 못이기는척 허락했다. 곧 포기하리란 예상을 뒤엎고 아내는 45일동안 4만5천번의 사불을 해냈다. 그 일이 있은 후 정위원장은 아내와 함께 법회에 참석하는 부부가 됐다.

"우리 집에는 복전함이 있습니다. 두 아이와 아내, 내가 날마다 절약한 액수의 돈을 넣기를 몇 년 동안 거른 적이 없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가족이 함께 복지시설을 찾아 회향의 자리를 마련하곤 합니다. 그보다 좋은 가정교육은 없다고 생각해요."

올해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에서 교화부장을 맡은 정위원장은 환경문화학당이라는 테마법회를 기획했다.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법우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원들의 신행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이다. 환경문화학당이 끝나면 수행법과 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45년동안 전법에 나섰던 부처님의 생애야말로 생생한 가르침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 수행과 전법의 길을 걸을 생각입니다."

박봉영 기자

법조계 젊은 불심 뭉쳤다

통합 다르마법우회 출범 … 회장에 이홍주 변호사

사법연수원 출신 기수별로 운영되던 다르마법우회가 하나로 통합했다(사진). 사법연수원 31기부터 현재 사법연수원 2년차인 35기까지 통합다르마법우회로 새롭게 거듭난 것.

통합다르마법우회는 최근 서울 봉은사 선불당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31기 회장을 지낸 이홍주 변호사(사람과 법 공동대표)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회원 배가 등에 진력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후 전국으로 흩어져 모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다르마법우회는 이로써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총 7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통합다르마법우회는 앞으로 회원을 100여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매월 봉은사에서 정기법회와 참선수행 및 철야정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률상담의 횟수를 늘리는 등 봉사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초대회장 이홍주 변호사는 "회원 개개인의 수행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법조인으로서의 재능을 사회에 회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지도법사 · 상임법사 위촉키로

경불회 확대임원회의, 부회장단 임명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한진호)가 지도법사를 위촉해 경찰불자들의 신행활성화에 나선다.

경불회는 3월 26일 경찰청 법당에서 교례회 및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지도법사제도를 신설해 경찰불자들의 신행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도법사는 조계종, 태고종 등 각 종단의 원로와 지도자급에서 포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스님들을 위촉하자고 뜻을 모았다. 경불회는 각 지역에서 경찰불교회를 지도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안배해 위촉할 방침이다.

전직 경찰관으로 근무했거나 현직에 종사하는 각 종단의 포교사 · 법사를 상임법사로 위촉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활동중인 고행섭(부산지방경찰청), 이상학(서울 서초경찰서), 박금철(서울 강동경찰서) 포교사를 비롯해 40여명의 전 · 현직 포교사 · 법사들이 해당관서 불교회의 신행활동을 지도하게 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임승택 경찰청 경비1과장, 정인식 경찰종합학교 교무과장, 조계훈 서울경찰청 112지령계장, 이병욱 전남경찰청 정보과장, 서연식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계장, 이기병 충남경찰청 인사계장, 진계숙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등 7명을 경불회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정기총회 및 창립 4주년 기념법회는 4월 23~24일 평창 월정사에서 봉행하기로 했다.

한진호 경찰불교회장(경찰청 정보국장)은 "지난 2월 정기인사로 경찰불교회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있었지만 각 종단, 신행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을 통해 경찰불교회를 활성화시켜나가자"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춘계 의료봉사 실시

병불련, 이달말 안동지역서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 불자들이 템플 스테이를 겸한 의료봉사를 떠난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는 4월 30일과 5월 1일 봉정사에서 신도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춘계 의료진료봉사를 벌이는 한편 사찰문화를 체험한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에는 병불련 소속 의사와 간호사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료봉사는 내과, 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한방침구과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진료가 이뤄지며 물리치료, 발마사지 등 의료서비스도 제공된다.

김주효 병불련 회장(국립서울병원 간호과장)은 "낮에는 사찰 신도와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일정을 마친 후에는 회원들의 신앙심 고취를 위해 108배 등 산사에서의 신행체험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www.kumdeung.com
금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황금빛 찬란한
황금연등으로 온 누리를 밝히소서

장엄용 황금연등
금박 등표 (방수용)

빗물에 젖어도 글씨가 번지지 않고,
바람에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꼭, 유성 싸인펜으로 글씨를 쓰십시오)
※ 등표 글씨와 그림은 금박입니다.
황금연등가격 ▶6cm : 3,500원 ▶8cm : 4,500원 ▶10.5cm : 7,500원 ▶13cm : 23,000원
▶20cm : 45,000원 수술은 추가 각1개 500원 입니다
KD금등사 | 구매상담 전화 : 전인권(KD금등사 대표) TEL 031-846-1950 H.P 011-774-1452 | 입금계좌번호 농협 105-01-248126 (전인권)

2005年新/製/品 스님용 신발 滿行靴
발명특허 제4722호 출원
실용신안 제2318호 출원
의 장 제1689호 출원
상 표 제2956호 출원

수제화 - 만행화
■ 규격 : 215~290(mm)
발바바 내부구조
신제품

● 발바닥 경락도

깔창 '발바바'
(우리땅 우리황토로 제작된 실리콘 양면 깔창)
만행 및 포행시 발바닥 주요 경락을 지압하여 누적된 피로를 풀어주고 특히 몸무게 하중으로 짓눌려 고생하는 발바닥 지압을 통해 발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1. 단화 특징
• 한국 고무신코 기준 스님 치수로 제작
• 만행 및 포행시 단정함을 유지 (수행자 복장과 조화)
• 외국에서도 한국스님의 품위를 유지 (한국스님 신발로 인정)
2. 색상구분
• 스님용 : 회색, 백, 흑
• 신도용 : 흑, 백, 자주색
3. 가 격
80,000원
제조원 : 벽산아트
만행화 www.manhaenghwa.co.kr
문의 및 주문 TEL : (02) 927-5715 H.P : 011-9000-5715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212
농협 063-12-250427 예금주 : 구자민
제품 확인 하신후 구입 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 도반님께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